동곡미술관·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전시 2제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시설이 드문 광주시 광산구에 문을 연 동곡미술관·박물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았다. 보문고를 운영하는 보문문화재단(이사장 정영헌)이 지상 3층 규모로 오픈한 동곡미술관·박물관은 선조들의 얼이 담긴 의미있는 유물과 다양한 현대미술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개관 후 '동곡, 빛이 내린다', '업사이클 예술놀이', '꼭두전' 등 다양한 기획전을 열어온 미술관과 박물관이 1주년을 맞아 특별전과 학술대회를 마련했다.

'평화'

동곡미술관 박은용 전 모습.

'비운의 천재화가' 박은용을 만나다

동곡미술관, 19일부터 특별전…미공개작 등 30여점 전시

"나는 먼 옛날부터 자연을 지키며 자연에 순응하며 이 땅을 지켜온 선량한 민초들을 사랑한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소탈한 모습의 수묵 '자화상'과 함께 걸린 이 글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다. 맞다. 그의 화폭엔 언제나 소박한 우리 이웃들이 모습이 담겼다.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고,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에 따른 고독과 불안, 절망에 시달렸던 그였지만 죽을 때까지 붓을 놓치 않았고 가족, 이웃들의 모습을 꾸준히 그려나갔다.

동곡미술관에서 열리는 '석현 박은용:전원에 산다'(19일~2022년 2월13일까지)는 '비운의 천재화가', '고독한 농부화가'로 불렸던 박은용(1944~2008)의 작품 세계를 만나는 전시다.

지난 2018년 서거 10주기를 맞아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대규모 기획전에 이은 전시로 당시 선보이지 않았던 작품을 중심으로 모두 30여점을 전시하고 있다. 또 그가 쓰던 화구 등 유품과 아내 임정숙 여사, 박종석 화가, 조인호 평론가 등의 인터뷰를 담은 영상도 준비, 석현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잘 들여다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이 석현 박은용 기념사업회와 준비했다. 사업회가 전국에서 수집한 개인 소장 작품과 함께 정영현 이사장 소장작이 여럿 나왔다. 오래전부터 석현의 작품과 삶에 매료된 정 이사장은 초기 수묵 작품을 비롯해 현재 50여점을 소장하고 있고, 지난해 개관 당시 언젠가는 석현 전시를 열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특별전은 전시 주제처럼 소박하고 아련한 농촌 풍경이 주를 이루고 있다. 먹의 번짐과 붓터치, 흑백의 조화가 인상적인 1970년~1980년대 초기 작품과 화순 두강마을 정착 이후 전원생활의 여유와 즐거움을 그려낸 1990년대 작품이 전시됐다.

'현대 풍속화가'라는 별칭처럼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풍경과 인물은 잊혀져 가는 우리 삶의 모습과 인간의 희로애락을 오롯이 담고 있다. 초가집과 낮은 담장이 어우러진 시골길, 개울에서 멱을 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만 같은 여름풍경, 논밭을 가는 분주한 농부의 모습, 새참을 머리에 이고 가는 엄마와 아이, 높이 달린 감을 따는 모습 등 화폭에선 따사로운 정취가 물씬 풍긴다.

특히 들판에 지게를 내려놓고 앉아 담배를 태우는 인물이 그려진 '정담'(1983), 수레 위로 볏단을 올리는 농촌사람들을 대담한 필선으로 단순화하게 표현한 '추수'(2000) 등은 자연과 어울리며 더불어 살아가는 전원적 삶의 기쁨이 녹아 있다.

진도에서 태어난 박화백은 조대부중에 입학, 미술반에서 오지호 화백을 만나며 화가의 꿈을 꾸었고 조대부고를 거쳐 서라벌 예대 회화과에서 공부했다. 이후 먹을 중첩시켜 갈필의 흔적이 겹쳐지도록 세필을 운용하는 적묵법(積墨法)을 통해 자신의 작품 세계를 확고히 굳혔다.

가족의 죽음과 관련한 트라우마와 가난, 정신병원 입원 등 평생 힘든 삶을 이어왔지만, 그가 남긴 작품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휴무, 오전 10시~오후 6시. 무료 관람.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금관총 신라금관 출토 100주년 '고구려 불꽃무늬 금관' 공개

동곡박물관, 20일~12월19일 특별전…학술대회도 개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고구려 불꽃무늬 금관'이 공개돼 눈길을 끈다.

동곡박물관은 오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특별전을 개최해 유물 30여 점을 비롯해 '고구려 불꽃무늬 금관'을 일반인에게 선보인다.

고구려 불꽃무늬 금관은 관테에 두 종류의 불꽃무늬인 세움장식 7개를 이어 붙인 형식으로 전형적인 삼국시대 금관 양식을 띄고 있다. 둘레 59cm, 높이 15.8cm이며 출토지를 추정할 수 있는 당시의 묵서명이 남아 있어 역사적, 학술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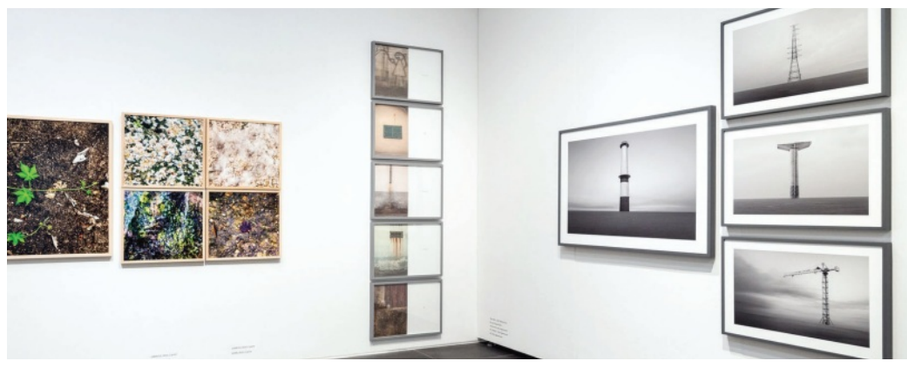
이번 특별전은 동곡박물관이 올해로 금관총 신라금관 출토 100주년을 맞아 펼치는 학술대회와 연계돼 개최된다. 경주에서 최초로 발굴된 금관총 금관이 올해로 100년이 됐다는 것은 고고학사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다.

학술대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한국의 금관 최초 발견 100주년 기념'을 주제로 펼쳐진다. 먼저 1부에서는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1호 석실의 冠부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이건용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연구원), '쪽샘 44호분과 황남동 120호분 발굴 조사에 대하여'(심현철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특별연구원), '금관총의 구조와 출토유물'(김대환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사), '흉노의 제천금인과 유라시아 금관의 탄생'(강인욱 경희대 사학과 교수), '삼국시대 금관의 상징'(김대환 동곡박물관 관장·임보라 동곡박물관 학예사)이 발표된다. 2부에서는 신창수 전 국립공주박물관장이 좌장을 맡아 한국금관의 쟁점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다.

박물관에서는 현재 고조선 시대 유물인 비파형동검, 세형동검, 간돌검을 비롯해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물 130여 점이 망라된 특별전 '고조선에서 조선까지:민족의 얼을 찾아서'를 개최 중이다.

'고구려 불꽃무늬 금관'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을 수상한 문선희 작가의 작품들.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 문선희 작가

신진작가상은 이설…19일 시상식

제 22회 광주신세계미술제 대상에 문선희(43·사진) 작가가 선정됐다. 신진작가상은 이설(33·회화) 작가가 받았다.

1996년 시작된 광주신세계미술제는 광주·전남 지역의 역량 있는 작가 발굴과 창작지원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지역미술문화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광주신세계가 개최하는 공모전이다.

대상 수상자에게는 1000만원, 신진작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별도의 창작 지원금 지원을 통해 광주신세계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 시상식은 19일 오후 5시 신세계갤러리에서 열린다.

문 작가는 본인이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장면들을 통해 현대사회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탐구하는 작업을 지속해왔다. 문 작가는 이번 공모에서 전시에 '묻다'(2015), '묻고 묻지 못한 이야기'(2016), '거기서 뭐하세요'(2019) 시리즈를 선보였다.

사진 시리즈는 구제역과 조류독감으로 인해 조성된 매몰지의 3년 뒤 모습, 1980년 5월 광주에서 초등학생 시절을 보낸 아이들의 당시 기억, 고공농성이 일어났던 장소들을 직접 담고 있다.

문선희 작가

박영택 심사위원은 "사진과 문자, 서사를 지닌 이 작업은 매우 시의 적절한 주제를 거느리고 보는 이의 관심을 사로잡는다"며 "작가의 다양한 관심사와 그것들을 힘껏 담아내는 성실함, 집요한 탐사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신진작가상을 수상한 이설 작가는 사라지는 공간들을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당시 느낀 감정을 특유의 색감으로 장지 위에 과슈로 표현하고 있다.

한편 고영찬·김고은·김영남·문선희·박현아·이설·조현택·최기창 작가가 참여한 전시 1차 선정작 가전은 12월1일까지 신세계갤러리에서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시인 김소연·음악인 최고은 '우정스러움'

순수 'reAL ll' 공연…20일 오웬기념각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을 거점으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소개해온 '순수'가 오는 20일 오후 7시 오웬기념각에서 2021년 시즌 세 번째 공연 'reAL ll'를 선보인다.

'reAL ll'는 '우정스러움'이라는 주제로 마음사전'의 저자인 김소연 시인과 독보적인 색깔의 음악으로 관객들을 만나 온 음악인 최고은 두 사람이 작업한 산문과 음악을 관객들과 나누는 시간이다.

'record everywhere ABOUT LIFE'의 약자로 '일상적인 장소에서 보통의 이야기를 기록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연에서는 두 사람의 작품 중 동명의 제목을 지닌 산문과 음악 '오늘의 나는'과 '오늘의 난'을 선보이며, '미지근하게', '축제' 등의 산문과 음악 총 여섯 작품이 관객과 만난다. 공연의 시작과 끝은 김소연 시인의 프롤로그로와 에필로그로 장식한다. 이밖에 'reAL ll'와 결을 같이 하는 최고은의 노래들을 풀밴드 사운드로 들을 수 있다.

김소연

최고은

이날 공연장에서는 김소연 시인의 미발표 산문과 최고은의 노래 가사가 적혀있는 한정판 책자도 판매한다. 문의 062-651-0972.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전남발전협의회 '무등미술대전' 22일까지 공모

제37회 무등미술대전(전국 공모)이 열린다.

(사)광주·전남발전협의회가 주최·주관하는 '무등미술대전'은 1985년 첫 대회를 개최한 이후 꾸준히 전국의 역량있는 미술인들을 발굴해온 전통의 대회다.

작품 공모는 한국화, 문인화, 양화, 수채화, 판화, 조각, 공예(금속·도자목칠·섬유 및 기타), 서예(한글·한문·현대서예·전각) 사진 등이며 접수 마감은 오는 22일까지다.

분야별 대상 9명에게는 각각 상금 500만원이 수여되며 우수상 22명에게는 상금 50만원이 수여된다. 미술대전에서 동일 분야 4회 이상 특선하거나 10회 이상 입선(1회 이상 특선)하면 초대작가로, 추천작가로 5회 이상 미술대전에 출품한 자는 초대작가로 활동할 수 있다.

심사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며 입상작은 26일 광주·전남발전협의회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입상작 전시회는 오는 12월10일부터 16일까지 광주시 북구 용봉동 광주 비엔날레전시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40
1982 - 2022
국제보청기 40주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since 1982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 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